

# 韓日兩國의 民族性과 그 社會的背景

李 萬 甲

서울大學校文理大教授

## 1. 머릿말

「韓國的인 것」의 究明을 시도하는 이 심포지움에서 「韓日兩國의 民族性과 그 社會的背景」을 題目으로 삼고 論하려는 것은 韓國人의 民族的性格을 그 歷史的 社會的인 背景과 關連시켜서 보자는데 主要한 目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밀접한 關係를 가져온 日本人의 民族性과 그것을 形成한 社會的背景을 고찰하여 兩者를 比較해 볼 때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民族性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날의 民族性이 아니라 兩國이 近代化以前의 傳統社會에서 가지고 있었던 民族性(그것은 各各 現代社會에서도 상당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겠지만)이며 그들을 形成한 社會的背景은 韓國의 경우 李朝社會에 日本의 경우는 戰國時代로 부터 德川時代에 걸치는 封建社會를 主로 해서 보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論하는 內容은 大분히 假說的이고 概括的인 것이며 따라서 異見이 제기 될 部分이 적지 않으리라고 짐작 한다.

## 2. 日本人의 民族性과 社會的背景

自然環境이 日本人의 民族性에 끼친 面을 제외하고 社會學的인 觀點에서만 볼 때 日本人의 民族性의 가장 主要한 特性을 그들이 극히 集團志向的이며 集團에의 歸屬意識이 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集團에서

는 權威主義的인 上下의 강한 支配 服從의 關係가 유지된다. 그러나 上者가 下者에 對하는 態度는 思顧를 베푸는 態度이며 下者가 上者에 對하는 態度는 獻身的 服從의 態度이고 彼此의 義理가 무엇보다도 존중된다. 上者는 原則的으로 實力을 가진 者이며 그와 正正 堂堂하게 對決해서 敗北하면 敗北者는 諦念하고 眞心으로 服從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集團內에서의 規制는 엄격히 준수된다. 그들은 集團人들로 부터 孤立하고 그들로 부터 侮蔑을 당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 한다. 그들의 行動은 普遍的인 善惡의 觀念에 의해서가 아니라 廉恥의 觀念에 의해서 一般化된 他者에 의해서가 아니라 特定한 他者에 의해서 左右된다.

그들은 集團內에서의 團結이 강한 反面에 集團밖의 他人 또는 他集團에 對해서는 警戒的이고 攻擊的이다. 그들은 外部로부터 恥辱을 당하거나 攻擊을 받으면 復讐를 한다.

日本人은 또한 극히 家族主義的이며 家長의 權威的 統制에 服從한다. 家族의 名譽를 지키려는 態度는 上部身分階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庶民層에 있어서도 강하다. 그러나 個人은 家族에만 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村落共同社會에도 강하게 속하고 있고 家族의 名譽에 못지 않게 地域社會의 名譽를 존중하며 血緣을 넘어선 地緣的 結合을 강조한다. 그리고 왕왕히 家族主義的인 結合樣式이 地緣社會와 나아가서는 機能的 集團에 까지 適用된다.

이러한 民族性은 勿論 身分階層에 따라서 多少 다르긴 하다. 그러나 庶民階級에도 一般的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日本人의 民族性을 形成한 重要的 社會的 歷史的 特性은 日本이 封建社會로서 各地域에 多元的인 政治勢力을 갖고 그들간에 熾烈한 鬪爭이 오랜 期間에 걸쳐 展開되었다는 事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地域이 鬪爭에서 勝利하려면 강한 共同體意識에 의한 結合과 上下의 權威的 義理的인 關係가 必要했으며 上者가 下者에 對하여 恩惠를 베푸는

것이 必要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領內에 있는 庶民들에 對해서도 그들이 生産을 높여서 戰力培養에 이바지 하게 할려면 領民들이 어느 정도 納得할 수 있는 統治를 해야 하며 그들에게 「制限된 自由를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庶民層에 있어서도 領主의 保護아래 自己들의 共同體的 生活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庶民階層을 中心으로 하는 共同體生活속에서 그들은 上流支配階層이 必要로 하는 物件을 供給하기 위해서 商貿易을 하고 手工業的 生産을 하며 그 機能을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역시 上流階層에 있어서와 같은 강한 上·下 關係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上流階層은 보다 더 儒教的인 規範에 의해서 規制되고 庶民層에 있어서는 보다 더 自然發生的인 民俗的規範에 의해서 規制되었을 것이다.

### 3. 韓國人の 民族性和 社會的 背景

韓國人の 民族性은 우선 韓國人이 身分志向的이며 地位 蔑을 추구하려는 意慾이 극히 강하다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韓國人은 集團志向的이 아니며 團結心이 약하고 派閥意識이 강하다고 한다. 韓國人에게는 地域的인 共同體意識이 pek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形式主義的이고 實際的인 能率에 도움이 되지 않는 虛禮虛飾을 좇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日本人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普遍的인 善惡의 觀念이 稀薄하며 體面을 존중하고 社會的 威勢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쓴다. 그 體面은 兩班身分集團에서 評價하는 威勢體系에 立脚한 體面이며 地域社會의 共同體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人은 pek 平和的이며 日本人에 비해서 덜 鬪爭的이고 攻撃的인 것 같다. 그리고 實力을 가지고 남과 對決해서 勝利를 건우려는 態度보다는 보다 實力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의 庇護밑에서 有利한 立場을 취하려는 性格

이 길다. 集團內에서 韓國人은 上級者에게 잘 服從한다. 그러나 그것은 任命權者로서의 上級者에 服從하는 것이며 上級者가 權力을 상실하면 그에 對한 服從心은 급속히 弱化하는 것 같다. 韓國人에 있어서는 日本人에 있어서처럼 강한 一體感에 의해서 結合된 義理關係가 깊지 못한 것이다.

韓國人은 극히 家族主義的이다. 사실상 韓國人은 家族以外的 다른 集團에 속하고 있는 면이 아주 적고 村落안에 群集하고 있어도 村落社會에 機能的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共同體的인 結合을 하고 있는 程度는 日本에서 보다 상당히 弱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들은 家族의 倫理에 철저하고 家族에서 或은 家族의 擴大된 集團인 親族과 門中에서 孤立하거나 돌림을 받을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러나 위에 든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은 주로 兩班官人이나 그에 準하는 階層에 該當되는 것이며 一般 庶民層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하면 그렇지는 않는 면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一般庶民層의 社會的 性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社會의 舞臺에서 活動하였든 支配階層의 社會的 性格을 보고 그것이 곧 民族性인 것으로 一般化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眞實을 歪曲한 見解가 되기 쉬운 것이다.

韓國의 支配的 階層이 그런 社會的 性格을 가지게 되는데 영향을 준 社會的 背景은 李朝五百年이 엄격한 官人身分社會이며 中央集權的이었던 社會構造的特性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官職을 차지한 사람이 身分的인 威勢를 享有할 수 있었고 物質的인 享樂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官職을 渴求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官職을 차지한 사람이 兩班이고 그 身分이 一定한 世代 期間에 世襲되는 것이기 때문에 家門이 重要視되며 家門을 빛낸 先親을 받들고 家族一家의 結束을 強化해서 그의 身分을 永久히 유지하려 든다. 儒敎는 그런 社會에서 존

중된 觀念體系이다.

地方의 長官은 中央에서 任命된 사람이며 따라서 地方民과 강한 紐帶가 成立하기가 어렵다. 그는 三權을 쥐고 있기 때문에 恣意로 統治할 수 있다. 그의 恣意的 統制를 抑制할 수 있는 사람은 地方의 兩班勢力들이며 따라서 그들과 結托下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下位身分階層에 있는 사람은 地方의 兩班勢力에 隸屬하거나 官에 隸屬하지 않고는 生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庶民層은 日本의 庶民層이 가졌든 그런 自己의 世界를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兩班階層은 官에 志向하는데 官의 數는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爭奪이 심해지고 派閥을 形成해서 自己의 地位를 固守하려 하며 落伍된 者는 다른 玆玆치 못한 方法을 써서라도 既存勢力을 꺾으려고 한다. 그리고 兩班에 準하는 勢力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自己의 安全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